

### 공동체 소식



#### 연중 제20주일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 매일미사 책 99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8/21(월):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8/24(목):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 2017년 본당 야외미사

- 일시 : 9/3(주일) 오전 11:00.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Lenexa, KS 66219

■ 본당 평협회 회의

- 일시 : 8/20(주일)  
- 장소 : 본당 나자렛 교육관.

■ 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 8/27(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 장소 : 본당 나자렛 교육관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위원  
총무;김대연 요셉, 재무;김병철 베네딕도,  
전례;박태주 로마노, 구역: 이영민 엘리사벳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9	221	178	68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정예진 한나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스티카
차 주	최은미 아네스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차 주	김명은, 한춘희, 장보혜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김대연 요셉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8/13	57명	428달러	350달러
김동술, 김정원, 이영민 (총3세대)			

연중 제20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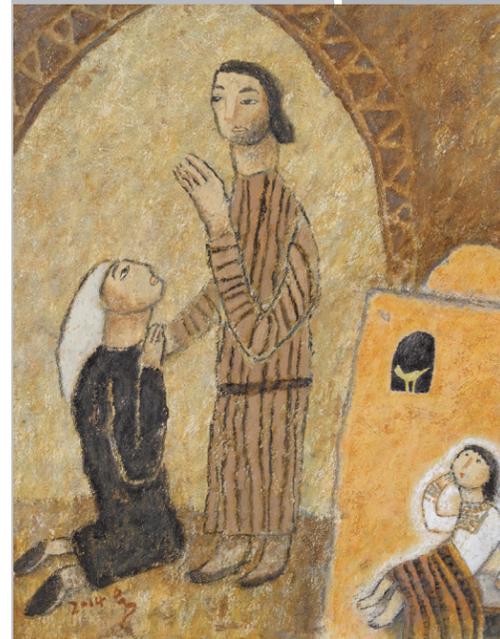
2017년 8월 20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자비를 청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하느님께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자의 낮추심으로 구원의 보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증언하도록 합시다.

### 그림 묵상

#### 한 여인의 믿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마태 15,28)

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항구하게 어떠한 처지에서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분께 희망을 둔다면 주님은 크나큰 사랑과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6,1.6-7  
<나는 이방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리라.>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13-15.29-32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21-28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구원의 문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며, 당신의 의로움이 곧 드러나라고 예고하십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모든 이가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나아와 성전, 곧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종이 되려고 주님을 따르는 이방인들”(이사 56,6)도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느님의 구원이 오직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느님의 진노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향한 하느님의 진노, 곧 하느님의 복수의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날이야말로 하느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날로 이방인들에게는 파멸이,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인용하여 사도 바오로는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로마 1,18)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그 진노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누구든지 하느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 가운데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로마 3,19-20)

하지만 하느님께서 언제나 당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2독서가 이야기하듯이 한 번 주신 은사와 소명을 철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고자 하십니다.(에제 36,16-38) 오늘 제1독서의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바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 파견된 분임을 밝히십니다.(마태 15,24)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곧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 하느님의 의로움, 곧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이 드러날 것이고, 당신을 통해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이면 누구나 하느님의 성전(묵시 21,22)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와 하느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드리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묵시 5,9; 7,1-17)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제1독서는 “공정을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이사 56,1) 하느님의 의로움 덕분에 자비와 용서를 입게 되어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자신이 입은 자비와 용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비와 용서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차도록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자비와 용서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정과 정의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 곧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정과 정의란 바로 자비와 용서임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도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마태 15,25) 오늘 복음 속 가나안 부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지요? 기도는 숨 쉬고 밥 먹고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능에 상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매일 기도하는 건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기도는 우리를 정화하고 유혹에 맞설 힘을 줍니다. 또 기운을 북돋아 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며 대체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요.

하느님을 잊고 그분에게서 도망치며 자신을 숨기려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늘 우리가 당신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그분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야기할 사람 없어 외로울 때도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흔히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탈출기 3장은 기도가 무엇일 수 있는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느님은 모세와 치열하게 대화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을 드렸으며 마침내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사명을 받았고 기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탈출 33,11)는 말씀을 읽을 때면 부러운 마음에 모세처럼 기도하고 싶어지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삶 자체가 탁월한 기도였습

니다. 그분은 사막에서 유혹을 받을 때나 제자들을 뺨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자신을 하느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참, 기술을 배우듯 기도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기도 잘하는 비법이나 지름길도 따로 없고요. 기도는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익힐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정성껏 말이죠.

명동본당 지하성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붙어있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도 기도할까요? 가나안 부인처럼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 대단치 않은 것

갑자기 오셔서 차린 것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진수 성찬입니다. 소박한 상을 마주하고 따스함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운 건 많고 화려한 밥이 아닌 대단치 않지만 따스하고 포근한 밥입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태 15,28)

